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10. 8.(목) 총 3매(본문 2매)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박균성, 주무관 최자영 (☎ (044) 201-3835, 3843, 4999)	
즉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현대, 코나(EV) 자발적 제작결함시정(리콜) 실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현대자동차(주)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(리콜)한다고 밝혔다.

□ 현대자동차(주)에서 제작, 판매한 코나 전기차(OS EV)는 차량 충전 완료 후,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*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(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배터리 교체)에 들어간다.

* 제조 공정상 품질불량으로 양(+)극판과 음(-)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

○ 금번 코나 시정조치(리콜)는 자동차안전연구원(KATRI)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유력하게 추정된 화재 원인을 시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으로,

- ①리콜 시 배터리관리시스템(BMS)을 업데이트 한 후 점검결과, 과도한 셀간 전압편차,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고,
- ②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배터리 관리시스템(BMS)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충전중지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하며

경고 메시지를 소비자 및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(현대차)에 자동 전달하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(KATRI)은 금번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과 별개로 화재 재현시험 등 현재 진행중인 결함조사를 통해 제작사가 제시한 결함 원인과 시정조치(리콜)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 필요 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콜 조치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이나 보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'17.9.29일부터 '20.3.13일까지 제작된 차량 25,564대로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(주)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,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*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.

* 자동차제작자들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(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)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

○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(주)(☎ 080-600-6000)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박균성 사무관(☎ 044-201-384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리콜 대상 자동차

제 작 사	차 명 (형 식)	결 합 장 치	제 작 일 자	대 상 대 수
현대자동차(주)	코나 전기차 (OS EV)	고전압배터리	'17.09.29.~'20.03.13.	25,564

참고 2

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

현대·기아자동차(주)	
	  [고전압배터리어셈블리] [배터리팩]
코나EV	고전압배터리

*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

참고3

고전압 배터리 구성체계

셀 (294개)	팩 (5개)	어셈블리
	 각 팩당 57~60개 셀로 구성	 5개 팩 + BMS 및 냉각 시스템